

고려침몰선 청자,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서 생산

군,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 산이면 발굴 동일 청자 다량 출토 강진·부안과 세계유산 등재 속도

1983년 완도 어두리 앞바다에서 인양된 고려침몰선의 청자가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청자요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군은 최근 사적 제310호인 산이면 진산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산리 청자요지는 산이면 초송리 남쪽에서 진산리까지 6km에 걸친 해안선을 따라 120여 곳의 가마터가 밀집해 있어 우리나라 최대 청자 생산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오래 전 낮은 야산이었기 때문에 삼림이 풍부했고 바다와 인접해 해남만을 통해 활발한 해상교통로가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3년 완도 어두리 앞바다에서 출토된 3만여 점의 청자류가 이곳 생산품으로 밝혀져 청자의 생산지와 유통과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했다.

해남군은 유적의 명확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발굴조사를 진행, 청자와 도기를 대량 생산한 가마 3기와 폐기장 3기, 토취장(土取場·가마 또는 도자기 제작을 위해 흙을 채취하는 장

소) 등을 확인했다.

가마는 10m 안팎의 소규모 토축요(土築窯·진흙으로 만든 가마)와 20m 안팎의 중형 토축요가 발견됐다. 주변 폐기장은 모두 1m 이상 두터운 퇴적을 형성하고 있다. 폐기장에서는 청자와 흑자, 도기 등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가 확인되고 있어 오랜 기간 도자기를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강진 사당리 유형의 양질청자와 고려 인종 장릉 출토 청자반침대와 유사한 도기 등이 새롭게 확인됐다.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군산 십이동파도(11세기), 완도 어두리(12세기), 태안 마도 1호선(13세기) 등 해저 출수 유물과 동일한 청자와 흑자, 도기 등이 다량 출토돼 해저 출수 유물 생산지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해남은 고려시대 강진, 부안보다 더 많은 청자 가마가 운영된 최대 규모의 청자 생산지로 소박한 멋의 '녹갈빛 그릇'은 당시 고려에서 크게 유행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300여년 동안 명맥을 유지하며 서남해 바닷길을 통해 각지 소비지로 유통됐다.

1992년과 2017~2018년 이뤄진 발굴조사로 수많은 가마터와 유물이 출토됐으며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국가 사적 제310호)와 해남 화원면 청자요지(전라남도 기념물 제220호) 등 가마터들이 문화재로 지정됐다.

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1983년부터 40여



명현관 해남군수 등이 사적 제310호인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청자요지 발굴 조사 현장에서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해남군 제공>

년간 완도와 군산, 태안, 진도, 영광 해역 등지에서 해남청자 4만여점과 난파선 3척을 인양하는 등 발굴조사와 연구를 진행, 수중 발굴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군산 십이동파도를 비롯해 인양 선박·난파선에서 출수된 해남청자 2500여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지난 2019년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해 발굴조사를 마무리한 화원면 청자요지에 이어, 이번 진산리 발굴조사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해남군이 강진군, 부안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고려청자요지' 세계유산 등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남은 강진, 부안과 함께 고려시대 대표 청자요장(窯場·도자기 굽는 곳)이 있는 곳으로 최근 이들 지역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학술적 기반을 다지는 발굴조사와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먹이활동 중인 황새.

국제 보호종 황새 4개체 신안 증도 갯벌서 먹이활동

신안군은 국제 보호종인 황새 4개체가 증도에서 관찰됐다고 밝혔다.

황새는 시베리아 남동부, 중국 동북부에서 번식하고 중국 남동부와 한국에서 월동하며 국내에서는 적은 수가 관찰되는 겨울 철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자료목록에 위기종(Endangered)으로 분류된 황새는 2500개체 미만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도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 및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증도에서 관찰된 황새는 인공증식으로 태어났거나 자연 방사한 개체가 번식에 성공해 태어난 2세로 모두 올해 태어난 어린 개체라고 신안군은 설명했다.

4개체 모두 개체 표식을 위한 가락지를 부착하고 있으며 각각 순황(E62), 햇살(H36), 백재(E58), 나라빛(E73)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사진으로 보는 영암군 생활·문화 변화상

사진첩 다음달 발간

영암군이 '사진으로 보는 영암군 근·현대사' 책자를 오는 12월 발간할 예정이다.

김한남 영암문화원장, 최남호 영암향교 전교, 김희태 전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책자 발간 자문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갖고 수록내용, 편제 등을 결정했다.

책자는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의 생활·문화·산업·공공 기관 등 분야별 시대 변화상을 기록한 사진첩으로 지난 3월부터 군민과 향우들을 대상으로 사진 모집 기간을 거쳐 400쪽 분량의 책자로 제작된다.

향후 12월 초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거쳐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1000여권의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책자는 균형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유관기관에 비치하거나 배부하고 군의 역사와 발전취를 홍보하는 자료이자 향토사 연구의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과거의 영암을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지난 역사를 알려 미래 발전의 지표로 삼을 방침"이라며 "유관 기관단체, 학교 등에 배부해 영암 홍보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영암군의 근현대사 책자에 들어갈 1966년 객토작업.

목포시,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발동

요양·정신병원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 의무화

목포시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취약 분야 선제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23일자로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시설 운영자·종사자, 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연근해어업 허가 어선 종사자,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기존 대로 2주 1회다.

행사 또는 집회 개최 주체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100인 이상 행사 또는 집회 개최 시 방역관리자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접종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참여를 제한시켜야 한다.

경로당은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도록 하고, 취식은 금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 1일 방역체계 전환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접종효과가 떨어지는 60대 이상 고령층과 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층에서 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지역 방문 후, 기침·인후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면역 확보를 위해 백신 예방·추가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불법행위 신고 하세요

목포소방서, 포상제 홍보

목포소방서가 겨울철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에 나섰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비상구 등 피난 시설과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중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 ▲소방시설 전원, 밸브 차단 ▲옥내소화전, 비상구 등 앞에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소방서 방문과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최초 신고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등 5만원 상당의 포상금과 2회 이상의 신고 유경험자에게는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 포상 물품이 전제된다.

박원국 목포소방서 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위급상황 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지킴이이며 이를 못 쓰게 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